

법학전문대학원별 기말시험 기간에 따른 불이익(본선 준비 기간)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권승현, 유정인, 정우진입니다.

먼저 좋은 대회를 준비해주시고, 운영하고 계신 대회집행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회 일정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요청사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청의 배경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총 25개교 중 24개교)의 기말시험 기간의 상이함

저희가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 기말시험 기간을 수합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기말시험 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던 1개교를 제외한 총 24개교의 기말시험 일정입니다).

(1)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학교 (5개교)	(2) 일부 불이익을 받는 학교 (8개교)	(3) 전면적인 불이익을 받는 학교 (11개교)
고려대 ~12.8.	건국대 ~12.15.	강원대 ~12.21.
경희대 ~12.8.	서울대 ~12.14.	경북대 ~12.21.
원광대 ~12.8.	성균관대 ~12.15.	동아대 ~12.22.
인하대 ~12.9.	아주대 ~12.18.	부산대 ~12.20.
한양대 ~12.8.	연세대 ~12.14.	서강대 ~12.21.
	중앙대 ~12.14.	서울시립대 ~12.22. (예상)
	충북대 (시작일) 12.7.~	한국외국어대 ~12.21.
	이화여대 ~ 12.14	전북대 ~12.21.
		전남대 ~12.22.
		제주대 ~12.21.
		충남대 ~12.21.

2. 공지된 본선 문제 게시일자와 각 학교별 기말시험 기간에 따른 유·불리 차이의 발생

한편, 대회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해주신 본선 진출자 발표 및 본선 문제 게시일시는 2023. 12. 6. (수) 11: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공지가 있지 않았으나 전년도인 제14회 대회 진행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선 문제 게시 이후 약 2주 간의 본선 서면 준비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학교별 기말시험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① 5개교 소속 참가자의 경우 문제 공개 직후 기말시험이 종료되므로 주어진 본선 서면 작성 기간을 거의 대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8개교 소속 참가자들은 사실상 준비기간의 절반 이상은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③ 11개교에 소속된 참가자들은 사실상 본선 서면 준비 기간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기말시험으로 인하여 대회를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안내된 본선 문제 게시일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기말시험 기간의 차이가 맞물려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라 본선 준비 과정상의 유·불리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3. 본선 문제 게시일 및 준비 기간 조정의 필요성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최소한 19개교 소속 본선 참가자들은 본선 준비에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기말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성격과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법정변론 경연대회이자 사법부에서 직접 개최하는 대회로, 이에 대한 더욱 높은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에 공개된 대회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며, 학교별 추천을 받아 같은 학교 소속 학생으로만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특정 학교 소속 학생들에 대한 이익 혹은 불이익의 불균형은 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속 학교에 따른 대회 참가자간 불균형한 기회의 부여는 대회의 위상과 신뢰에 막대한 손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만약 불이익을 받은 학교 소속 참가자들이 기말시험 준비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본선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회 일정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됨에 따라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학업 및 기말시험 대비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대회 참가 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이미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대회집행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계획 및 준비하고 계셨을 대회 진행 일정이 존재할 것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데 일부 번거로움과 비용 소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의 시정은 일정 조정에 따른 일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권위 및 위상 제고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더욱 큰 이익이 되는 조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5회 대회까지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시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본선 준비 기간이 주어진 적이 있는 만큼, 대회 일정의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선진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본선 문제도 공지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시점이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결론

이와 같이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기말시험 기간에 따른 참가팀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연대회 본선 일정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시험 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혹은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본선 문제 게시일과 본선 준비기간을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주고 계신 대회집행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더욱 공정한 대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